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임금이 밤에 책을 보다가 달을 보려는 흥이 일어나 환관 여러 명과 함께 애련정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올라가서 보니, 어떤 사람들이 쓰러져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도둑으로 의심하여 멈춰 서서 더 이상 가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그들의 동정을 자세히 살피니 **정녕** 경치를 즐기는 궁인들이었다. 친히 가서 보니, 총애하는 신하 복상이 공녀와 함께 팔을 나란히 베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국법으로써 논할진댄 죄는 **주살**해도 용납되지 못하나, ㉠은애(恩愛)로써 **살필진댄 정리상 차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임금은 ㉡한삼(汗衫) 한 폭을 잘라서 얼굴을 덮어 주고 나왔다. 대개 자애심이 많아 살생하기를 꺼리는 덕과 못된 버릇을 징계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것이리라. 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곧 임금이 다녀간 것을 깨닫고는 몹시 놀라서 각자 처소로 돌아가 다만 죽기만을 기다릴 따름이었다.

겨우 며칠이 지나자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들이 상소문을 함께 올려서 복상의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을 철저히 논했으나, ㉢임금은 살피는 것을 보류한 채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전(前) 판서 이수광이 있었는데 호가 지봉이며 바르고 곧은 사람이었다. 임금도 매양 그를 공경하여 예를 갖추니, 한나라의 신하 급암에 견줄 만했다. 그는 임금에게 급히 법기를 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복상을 빨리 **참수**해야 국법이 바로 선다고 힘써 아뢰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임금도 하는 수 없어 사형만은 감하여 복상은 제주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 하도록 하고 공녀는 강계에 귀양 보내도록 명했다.

어느 날 임금은 일찍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다. 그리고 주연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범의 가죽을 깎긴 의자를 내놓게 하고는 환관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을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에게 두루 알리도록 했다. “대소 신하들 중 본덕 밖의 방(房)에 첩이 없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으시오.”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조아리며 눈치를 살피느라 미적거렸으나 유독 지봉만은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으며 말했다.

“소신은 정말로 없습니다.”

임금은 크게 더욱 칭찬하고 탄복하였으며,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그의 몸가짐의 고상함이 무엇으로도 미칠 수 없음에 감복했다. 이후로 지봉이 조정에 들어가면 긴 의자를 내놓고, 나오면 매달아 두었다.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 거의 반년이 지났다. 임금은 복상을 생각하여 비록 마음에 간절하나 실로 입을 열기가 곤란했다.

어느 날 임금이 지봉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11강. 지봉전

작자 미상



11강

“평양 감사가 올린 계(啓)의 내용에는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으니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소. 그러나 평안 도는 저 국경과 접해 있어서 민심이 동요하기가 쉬우므로 본디 중신(重臣)이 아니고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소. 그뿐 아니라 평양 감영의 산수는 나라의 제일이라고 일컬어지거늘 경이 부디 수고로움을 잊으시고 한 달의 말미를 줄 테니, ㉠한편으로는 나라에 봉사하는 도리를 마음으로 다한다고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년에 경치를 즐기는 낙으로 여기어서 태평세계를 펴 넓힌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박정**한 말로 들리겠지만 가 주시오. 행차를 전별하는 데 있어서 옛날의 예법은 단오 부채 하나를 준다고 하오. 부채로써 모름지기 나의 마음을 표하노니, 경은 사양하지 마시오.”

[중략 부분 줄거리] 지봉을 평안도로 보낸 임금은 평양 감사에게 은밀히 교지를 내려 그곳의 기생으로 하여금 지봉을 유혹해 훼손시키라고 명한다. 평양에 간 지봉은 노련한 기생 백옥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자신의 절개를 깨뜨린다.

이 공은 땅에 엎드린 채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소신은 마음가짐이 굳지가 못하여 이번 평안도 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려 외람되게도 성은으로써 하사하신 부채를 감히 정표로 삼았습니다. 임금 앞에 어찌 꺼리어 숨기겠습니까? 임금의 교명(敎命)이 이렇게 됨에 소신은 부끄럽고 황공하여 용서받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크게 더욱 칭찬하고 탄복하며 말했다.

“임금에게 아뢰에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한 신하이다.”

임금은 순찰한 일이 어떠했는지 직접 물었고 이 공이 그것에 대해 아뢰고 나니, 임금이 이 공에게 술을 내렸다. 이때 백옥은 병풍 뒤에 있었지만, 이 공은 엎드려 있었던 까닭에 그녀를 보지 못했다. 백옥이 앞으로 나와 술을 드리니 이 공은 엎드린 채 손을 내밀어 받아서 마셨다. ㉢탐스러운 쪽 찢 머리와 옥으로 된 귀걸이, 푸른 옷과 붉은 치마를 한 여자의 모습이 술잔 중에 비치었다. 이에 이 공은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 스스로 생각했다.

‘조금 전에 마신 술잔에 깃사로 된 모자를 쓴 미인이 비치니, 이 어인 은혜로 특별한 예우를 해 주시는 것일까?’

이 공이 술 마시기를 마치자,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경은 시험 삼아 그 여인을 보시되,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

이 공은 잠깐 눈길을 보내어 보니 백옥이었다.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11강. 지봉전

작자 미상



11강

“임금의 덕은 하늘 같아서 고요히 부리시는 것이 조화롭고 또 만물을 마음대로 농락하시는데 신도 또한 그중 하나의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너그럽게 감싸 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어찌 감히 성덕의 시종을 엿보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백옥으로 하여금 이 공에게 부채를 돌려주도록 하면서 말했다.

“이 물건이 비록 하찮은 것이나 음양(陰陽)을 거두고 펼치어 능히 경으로 하여금 한판 좋은 인연을 맺게 했으니 진실로 건우직녀를 이어 준 두 부채에 못할 것이 없소.”

임금은 이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무릇 초패왕 항우의 뛰어난 계략도 옥장(玉帳)에서 슬픈 노래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소식의 큰 절개도 늙어서는 호희(胡姬)에게 정을 의탁하였으니,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같도다. 오호라! 경의 품행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저 복상이 나의 계집을 희롱하였다고 하여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 그가 나이 어린 젊은이로서 오랫동안 궁궐의 장막에 갇혀 살면서 여자를 생각함이 많고 아내를 두고자 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거늘,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실 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 어찌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하여 하루가 삼 년 같으니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 이에 이 공은 감사함을 받들어 머리를 굽혀 절을 하며 말했다.

“전하의 말씀이 이와 같으시니, 신은 죽어서도 능히 우러러 미칠 바가 못 됩니다.”

작자 미상, 「지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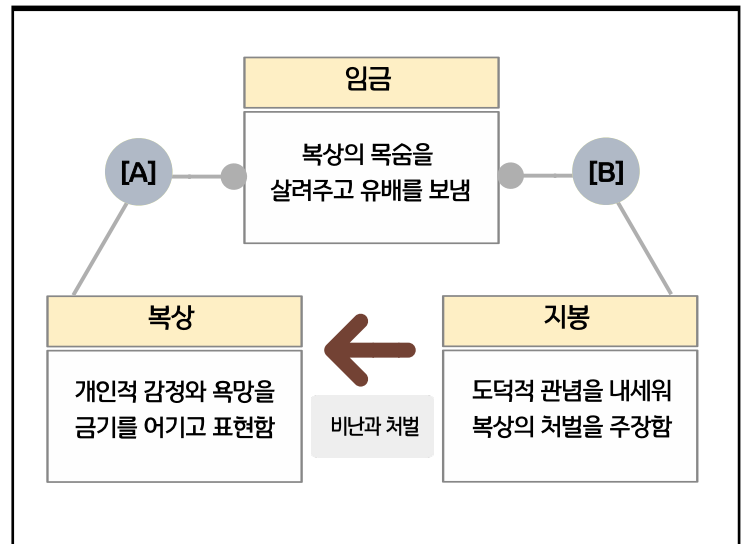
01 윗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후기에 한문으로 기록된 작자 미상의 소설이다.
- ② 유교적 도덕 관념을 강요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 소설이다.
- ③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망을 긍정하는 소설이다.
- ④ 기생의 유혹에 절개가 꺾인 남성의 서사를 다룬 회절소설이다.
- ⑤ 지나친 청렴을 강조하는 신화를 조롱하는 임금의 계략이 담긴 소설이다.

02 작가의 창작 의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사의 초점을 위선과 풍자보다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확장에 두었다.
- ② 인물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임금의 행동은 부득이한 선택이 결과였다.
- ③ 절개를 훼손 당하는 지봉을 희화화하지 않는 것은 임금의 계략이 조롱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 ④ 인간의 욕망을 배척하고 관념적 도덕성에 집착하는 지봉의 행동을 통해 도덕성의 무의미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 ⑤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일체의 관념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했다.

03 아래와 같은 인물 관계도를 만들었을 때 [A] 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A] 이해와 연민 | [B] 존중과 공경 |
| ② [A] 이해와 사랑 | [B] 비난과 질책 |
| ③ [A] 비난과 질책 | [B] 존중과 공경 |
| ④ [A] 이해와 사랑 | [B] 존중과 비난 |
| ⑤ [A] 존중과 비난 | [B] 연민과 사랑 |

11강. 지봉전

작자 미상



11강

04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상과 여인은 임금이 다녀간 사실을 단서를 통해 알았다.
- ② 임금은 밤에 인기척이 들려 환관들과 애련정으로 갔다.
- ③ 임금은 국법과 인정과 도리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였다.
- ④ 임금은 지봉의 생각을 바꾸려고 평안도 순찰을 맡겼다.
- ⑤ 임금은 지봉에게 백옥의 정체를 감추려고 장난으로 말했다.

0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임금의 선택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 ② ㉡: 당장 벌은 주지 않지만 잘못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있다.
- ③ ㉢: 양쪽을 절충하여 복상의 목숨을 살려주고 있다.
- ④ ㉣: 지봉의 생각을 바꾸려는 임금의 속내가 포함되었다.
- ⑤ ㉣: 백옥의 모습을 기억해 정체를 알기 시작한 부분이다.

0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복상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 ② 사간원들의 상소문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 ③ 복상을 아끼는 마음과 자신도 책임이 있다 여기기 때문에.
- ④ 지봉의 맹목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⑤ 자신의 결정으로 두 남녀의 사이가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07 윗글에 사용된 어휘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점]

- ① 정녕: 조금도 틀림없이 꼭. 또는 더 이를 데 없이 정말로
- ② 주살: 죄를 물어 처형하여 죽임.
- ③ 참수: 죄인을 물에 빠뜨려 처형하는 일
- ④ 박정: 인정이 매우 적은 듯 한 것.
- ⑤ 은택: 은혜와 덕택을 함께 아울러 이르는 말

08 윗글에 대한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은 이해와 관용, 존중의 품성을 지닌 인물이다.
- ② 지봉은 경직된 도덕관을 지녔지만 위선적 인물은 아니다.
- ③ 복상은 금기를 어길 정도로 개인적 욕정이 강한 인물이다.
- ④ 백옥은 임금의 계락을 충실히 실천하는 인물이다.
- ⑤ 서술자는 인물에 대해 직접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다.

0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복상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 ② 사간원들의 상소문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 ③ 복상을 아끼는 마음과 자신도 책임이 있다 여기기 때문에.
- ④ 지봉의 맹목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⑤ 자신의 결정으로 두 남녀의 사이가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답 & 해설



Q1 [정답] ⑤ 이야기속 임금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을 감안할 때 임금이 신하를 조롱하기 위해 계락을 꾸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조선 후기 한문 소설이다. ②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감정을 유교적 관념으로만 평가하려고 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③ 임금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긍정하고 있다. ④ 기생의 유혹에 절개를 훼손한 훼손 소설이다.

Q2 [정답] ④ 인간이 욕망과 감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도덕성의 무의미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경직된 도덕적 관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임금이 한삼을 잘라서 얼굴을 덮고 나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인간 본연의 욕망과 감정에 초점을 맞춘 소설이다. ② 임금의 행동은 대상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지 조롱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③ 지봉은 회화화 않고 오히려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줘 용기와 위엄있는 인물로 설정한 것도 조롱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⑤ 경직된 도덕적 관념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했다.

Q3 [정답] ⑤ 임금은 복상에게는 개인적 연민과 이해를 통해 인정과 도리를 생각하고, 지봉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과 청렴함에 존중을 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Q4 [정답] ② 임금이 애련정으로 간 것은 책을 보다가 달을 보려고 간 것이지 인기척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한삼 한 폭 때문에 알게 되었다. ③ 국법과 인정 사이에 인정을 선택하고 있다. ④ 임금은 경직된 도덕관을 갖고 있는 지봉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경험을 하도록 평안도에 보내 계락을 실행하고 있다. ⑤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Q5 [정답] ② 지봉은 엎드려 있어 백옥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임금이 경험 삼아 그 여인을 보라고 한 이후에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오답 풀이] ① 국법과 인정 사이의 선택 갈등이 드러난다. ② 완전하게 용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③ 임금의 최선의 선택은 복상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어서 절충으로 유배를 보내게 된 것이다. ④ 임금은 공적 임무와 사적 자유를 함께 보장해 주는데 이는 임금의 속내가 담긴 제안이다.

Q6 [정답] ⑤ 임금은 복상을 아끼는 마음과 복상의 잘못에 자신의 책임도 일부분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윤택하지 않은 것이다.(마지막 부분에 '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라는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연스러운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한삼 한 폭을 잘라 얼굴을 덮음으로서 잘못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있다. ② 상소문의 문제점에 관한 언급은 없다. ④ 지봉은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⑤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Q7 [정답] ③ 참수는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을 말함.

Q8 [정답] ③ 복상은 금기를 어기면서 사랑을 선택하는 욕망이 강한 인물이지만 욕정이 강한 인물인지 알 수 없다.(욕정은 한 순간 충동으로 일어나는 욕심이나 이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을 가리킨다.)

[오답 풀이] ① 임금은 이해와 인정이 많고 존중의 태도를 지닌 인물이다. ② 지봉은 경직된 도덕관을 지니기는 했지만 충직한 인물이다. ④ 백옥은 임금의 계락을 실천한 인물이다. ⑤ 서술자는 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Q9 [정답] ③ 임금은 복상을 아끼는 마음과 복상의 잘못에 자신의 책임도 일부분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윤택하지 않은 것이다.(마지막 부분에 '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라는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연스러운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한삼 한 폭을 잘라 얼굴을 덮음으로서 잘못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있다. ② 상소문의 문제점에 관한 언급은 없다. ④ 지봉은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⑤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